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8월 18일
제목	내가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의 심문)
본문	누가복음 22:66~71

녹취

• 서론 - 성경속 나타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들 혹은 그 대열 속에 선 자들이 많이 있다. 물론 당연히 성공한 것 같으나 정말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언약 속에 축복 속에 서 있었다. 갓아 축복받아놓고도 가장 저주 받은 자들이 되었다. 복음과 언약의 대열 속에 섰으나 모르고 놓치고 언약과 복음을 놓쳤다. 불신자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우리같이 교회 다니거나 성경책 들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가인이다. 불신자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처음부터 안 믿었겠지만. 보니까 창 3:15 언약을 복음을 놓친 것이다. 여자의 후손 피 언약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놓친 것이다.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드리지 않았다. 복음 놓친 자다. 가인이 그렇다. 또 에서가 그렇다. 또 사울 왕이 그렇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그랬다.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속에 있는 그야말로 최고 축복의 대열 속에 선 자요. 그런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불행한 자가 되었다. 가롯 유다다. 육신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가 그런 메시아인줄 알았다. 따랐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아니다. 즉각 배반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 지도자 버렸다. 배반했다. 이들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언약 핵심을 놓쳤다. 즉 복음 놓쳤다. 그리스도 복음을 놓쳤다. 또 하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전도, 선교 놓쳤다. 복음 전하는 게 전도, 선교 아닌가? 세계복음화 이것을 놓쳤다.

가장 축복받은 대열 속에 진짜 인물들이 있다. 응답받은 자, 증인들이 있다. 렘넌트 7명 요셉 렘넌트, 모세 렘넌트, 사무엘, 다윗 렘넌트 등등 7명의 렘넌트들 있다. 그 외에도 있다. 노아 전부 99% 언약 반대편에 네피림 되어 사탄 충만하여 그 길로 따라갔다. 유일하게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했다.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방주 만들었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방주 만들었다. 또 있다. 99% 거의 불신앙 하고 불신앙 보고했는데 믿음을 보고했다. 믿음 있는 언약 있는 자다. 여호수아, 갈렙. 또 있다. 라합 불신자다. 불신자인데 말씀을 듣고도 잘 못 깨다독 안 믿는데 바리새인들 누구인가? 그리스도 언약 알고 있다. 메시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오셨지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 망한 것이다. 라합은 불신자인데 소문을 듣고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었더라. 피 바른 백성들 홍해 건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이르렀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었다. 대단한 축복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 또 있다. 한나 사무엘의 렘넌트 발판 기도의 어머니 한나. 또 있다. 이새 중직자 다윗을 길러냈다. 오바댜 있다. 또 있다. 행 1:1,3,8 붙잡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모인 1,3,8 담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제자들 1,3,8 대열 속에 선 자들 그 속에 있는 자 또 있다. 의사 누가 예수님의 공생애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걸었다. 또 있다. 루디아, 브리스가 부부, 야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음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서서 쓰임 받고 증거를 남기고 작품 남겼다.

• 본론

1. 사탄의 심부름하는 어리석은 인간

오늘 본론에 보면 사탄의 심부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나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감람산에서 갓 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사역을 두고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가롯 유다의 배반 심지어는 베드로의 여자들, 종들에게 너도 그 당이라 하며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세 번 부인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 드디어 잡히셔서 심판을 받는다. 공회 앞에 법정에서 서서 빌라도 총독 앞에 법정에도 서고 헤롯 왕 앞에도 서고 이런 본문이다. 가장 사탄의 심부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

1) 사탄의 심부름 (창세기 3장)

사탄이 역사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창세기 3장 사건에 사탄이 뿔 하고 나타나서 나 사탄이야 하면서 시험 주고 하나님 떠나게 한 게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찬양하던 천사 대장이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쫓겨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 사탄이 드디어 출현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최고 축복의 인간의 진짜 참된 축복받은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 떠나도록 창세기 3장 사건 역사했다. 우리 인간은 기계로 창조함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속에 영혼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밖에 없다.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그렇다. 결정을 한다. 모든 피조물 동물들에게 없다. 오직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창조함 받은 인간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이란 원죄사건 빠졌는가? 그냥 된 게 아니다. 사탄에게 꼬임 받았다. 사탄의 역사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다음부터 아담의 후손 모든 태

어나는 사람마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원죄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전부 마귀 자녀다. 사탄 자녀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하여 마귀를 섬긴다. 그거 하는 게 우상 섬기는 것이다.

또 심지어 네피림 된 자 귀신 들린 자 사탄 충만한 무당들 말을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따라가면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귀신 말 듣고 무당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사는가? 즉 사탄 말 따라간다. 그래서 멸망당한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점점 더 무너진다. 창세기 6장 사건이다. 다 네피림이 되었다. 물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요 복음 붙든 자 방주 언약 잡은 자 노아가 나타났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가 되고 마귀 자녀가 되고 네피림 되었다. 그다음에 또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성공했다. 창세기 11장 사건인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하게 나섰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다. 이만큼 사탄이 역사했는데 사탄에게 빠져 우리 인가 나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게 나섰다. 하나님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다. 그게 바벨탑이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주의 백성들 언약 복음 놓치니까 전도, 선교 놓치니까 드디어 애굽에 노예가 되었다. 또 회복되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상숭배하던 바벨론에 결국 또 포로 되었다. 이때도 복음 놓치고 우상 섬기고 마귀 사탄 섬기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랬다. 그리고 가장 우상 많이 섬기는 바벨론에 포로 되어 후대들 다 고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되어 사탄의 심부름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간이 되었다. 결국 멸망한다. 그게 지금 창세기 3,6,11장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그게 인간이다.

2)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멸망받을 인간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니까 영세 전에 벌써 이 복음을 예비하

셨다. 엡 1:4-5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구원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 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성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여기에 성령께서 앞뒤전후 좌우로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인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석가가 그리스도 아니다. 공자가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이다. 저를 자주 이야기해서 미안하다. 저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4대 선조가 복음 받아 빛을 받아 예수 믿어서 태어나보니 다 예수 믿는다. 또 잘 믿는 분이다. 선조들 전부 장로님, 전부 권사님, 목사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그런데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 근데 제 동창생 너무 많다는 것 저도 알았다. 모태신앙, 5대 오래 믿었던 잘 믿건 결정적으로 복음의 핵심 되는 그리스도 모른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제가 다락방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끝,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직분 합친 말이, 그 직을 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시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아담의 후손 죄인인 원죄를 타고난 죄인 사탄은 그리스도 한 명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아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 아니다. 죄인, 마귀자녀다.

3) 눅22:67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 장로들,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다 알고 있었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다.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리스도 단어를 메시아를 알고 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란 단어 몰랐던 것 아닌데 결정적으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참 빛인 그리스도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속이는 전략이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구주, 그리고 주인 되심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시는가? 그게 중요하다.

특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지도자들이 가장 어리석다. 가장 사탄에게 속았다. 뭐가 어리석고 속는 것인가?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이 비유를 통해 복음 핵심을 깨닫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베드로 비롯하여 갈릴리 출신 어부, 제자들, 못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에게는 알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받았다. 딱 한 개 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눈은 도저히 그리스도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 알지 못했다.

심지어 제자들은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했다. 또 제자 중에는 나다니엘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축복된 자, 복 받은 자. 베드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 심지어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물 좀 달라하니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했다. 어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물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러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눈이 열렸다. 고백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께로 오라. 보라고 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복된 자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진짜 어리석은 자다. 사탄에게 속은 자다. 멸망 받을 자다. 딱 한 개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믿는 것은커녕 알지 못했다. 가장 불행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장 똑똑한 자가 베드로 아니다. 빌립도 아니다. 가장 똑똑한 자 가롯 유다다. 가롯 유다는 어부 출신 아니다. 똑똑한 자, 엘리트다. 그런데 가롯 유다 가장 불쌍한 자다. 그도 역시 뭐냐? 훈련받고 섬기고 따랐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했다. 선생님, 랍비여 정도였다. 얼마나 불행한가?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죄책감이 와서 자살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 역사 일어나니까 정치적 메시아인가 그렇게 본 것이다.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이들의 특징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고 대단한 자로 왕처럼 오시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여긴 것이다. 그래서 복음 감추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다. 말 구유에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아는 축복이 최고다. 이게 복음을 진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데 실제로 안 믿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의 최대 실수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사탄에게 최고로 속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

4) 그러나 사탄의 실패

여기에 보면 사탄이 성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탄이 실제로는 실패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다 당하시

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은 완전 박살 났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깨뜨리신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멸하는 유일한 분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제가 요즘 맨발 걷기 계속하는데 뒤꿈치에 조금 상처가 났다. 돌에 상처가 났다. 발꿈치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 권세를 박살 냈다. 참된 왕이시다. 사탄은 겨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이는, 무덤에 감추게 하는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깨닫는가? 복음이면 끝난다. 사탄이 실패했다. 예수님 대제사장 가야바 공회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왕의 법정에서 조롱당하시고 고난, 수난당하신 것 그제 멸망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사탄과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다. 바리새인의 승리가 아니다. 다음 주간에 설교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한다. 살인자 바라바 놓아줄까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러할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랬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바리새인들의 승리 아니다. 오히려 사탄이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완전 깨어진단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창 3:15의 성취다. 출 3:18,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어린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2. 네가 그리스도냐? 공회(법정)에서의 중요한 심문과 예수님의 대답(눅22:66-67)

1)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잡히셔서 법정에 공회 앞에 서신다. 이게 무시무시한 종교 법정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공회 즉 법정인데 예수님께서 심문받으신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 들여 이르되(66) 법정에 예수님을 세웠다는 말이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67) 바리새인 특징이 무엇인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안 믿는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데 안 믿는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이게 불행이다.

또 말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심문, 질문 두 가지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맞냐? 메시아냐? 또 하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이 두 가지다. 심문 두 가지인데 결정적인 것이다. 중요한 심문이 맞긴 맞다. 다 중요한 질문이다. 핵심 질문이다. 이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심문했다. 같은 상황에 마태복음 26장 공관복음에 보면 가짜 증인들이 많이 일어났다. 가짜 증인들 세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가짜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증언했는데 전부 가짜라는 게 들통났다. 또 가짜 증인들 세워 심문할 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 53장 말씀처럼 털 깎는 자 앞의 어린양 같이 잠잠했다. 대답하지 않으셨다.

2) 예수님은 다른 질문에는 침묵하시다가 이 질문에는 대답하셨다.

그 하는 질문 중에 말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했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였느니라. 즉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다. 그렇게 대답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할지라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자인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가? 그렇다면 최고 복 있는 자고 복을 받은 자다. 복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참 무서운 것이죠. 이게 멸망이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즉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다는 것이다.

이러할 때에 마태복음에 똑같은 공관복음서에 보니까 우

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참담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모르는 것이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참담하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리고 여러 법관들에게 물어본다. 바리새인, 제사장들, 법관들이 물어본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니가 역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사탄의 심부름에 가장 앞장선 자들이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 이들의 결정적인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않은 것 당연하고 사탄의 심부름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물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구원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된다.

베드로의 최초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질문과 고백과 답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똑같은 질문을 그들이 했다. 네가 그리스도냐? 즉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대답해 보라.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 아니다. 믿은 것 아니다. 심문하고 질문했지 고백한 게 아니다. 가장 어리석고 사탄의 심부름에 멸망에 앞장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사역, 구원성취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사역이다. 그것에 어떻게 하든 방해하는데 사탄의 심부름을 한 것이다.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헤롯 왕까지 이들이 원니스되어서 이상하리만큼 사탄의 심부름을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또 확인해야 된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주,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신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구원자, 구주다.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여러분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시다. 이것을 진짜 고백해야겠다. 이것을 또 확인해야겠다.

• 결론 -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오직 되어야 된다. 오직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완전 답이 나야 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하면 끝나야 된다. 그리고 결론 나야 된다. 끝이 나야 된다. 답이 나야 된다. 오직 유일한 해답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그리고는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위해 승리한 전도자들처럼 일심, 전심, 지속 심지어 죽을지언정 순교할지언정 결코 일심, 전심, 지속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들 함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다락방 이단이라고 되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불이익당하면서 심지어 목이 날아갔다. 함께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인도받았다. 지금도 여전하다. 지금도 한국교회 그러고 있다. 선교지에 또 그러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구나.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 목사님들이 다락방보고 교리적 이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버쩍 차렸다. 이게 아니구나. 동역자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인데 이것을 다락방 교리적 이단이라고 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뒤에 칼로 찔렸다. 그리고 자기들은 깨끗한 양 다락방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더 이상 오물을 뒤엎기 싫다면서 어떻게 했다 그때 제가 인간적인 것이 나오려고 하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잘하지 못하지만 오직 전도, 선교인데 다락방 교리적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회한하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일심, 전심, 지속 변하는 게 없어야 된다. 우리 교회 전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잘 못한다. 캠프 해매고 있다. 선교 물론 일심, 전심, 지속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복음, 복음 증거하는 오

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성경과 교회사에 일심, 전심, 지속 심지어 생명 내건 순교한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선, 언약의 대열 속에 설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바통을 이어가는 여기에는 답을 내야 된다.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1,380 언약 붙잡은 교회와 제자들 단순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큰 구원의 능력으로 살리셨는데 부활이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그것만 증거 했다. 단순하다. 모든 환란, 핍박, 손해, 단절 다 왔다. 초대교회와 제자들 한 사람도 Never Give up, Return 하지 않았다. 다 순교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 증거 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았다. 집에 있던지 성전이 있던지 현장에 있던지. 우리 강북영광교회는 주의 성도님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겠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오직 증인 되는 우리 교회 되고 주의 성도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 받으시옵며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무릎들과 모든 입술들을 어린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무릎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어린양 되신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주시며 우리의 주인,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고백을 24로 하게 하시며 24시로 증인 되는 참 전도자,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